

한미 FTA시대 개막

정치권 반음

정파 초월 찬반 격론...정국 난기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종료 이후 여의도에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미FTA 협상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구도가 국회로 무대를 옮길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의원단 대표들이 2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권오승 의원,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국민중심당 김낙성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 대표, 민생정치모임 김태홍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한미 FTA 세 확산=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 소야(小野) 3당의 반대 움직임에다 농촌 출신과 진보성향 의원들이 주축이 된 조정파적 '비상시국회의'가 조직적인 비준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 권오승, 민생정치준비모임 김태홍,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심상정,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 등 '한미 FTA 졸속타결 반대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7명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농림해양수산·보건복지위·문화관광위·재정경제위·통일외교통상위 등 5개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소집하고 청문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열린 우리당 지도부 '찬성' 탈당파·민주·민노·농촌의원 '반대'

8일째 단식농성 중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민생정치모임 회의에 참석, "참여정부가 4·2 조공협상으로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민생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날로 단식농성 일주일째를 맞은 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FTA 비준저지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우리 찬성 속 '선 평가'=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협상타결시 '선(先) 평

가, 후(後) 입장정리'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고 있다. 원칙적 찬성 기조이지만 사회적 찬반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는데 따른 정치적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타결과 비준은 기본적으로 별개 사안"이라며 "협상의 내용을 면밀히 평가해 문제점을 탐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날 "협상과

국회의 역할은 별개"라며 "일단 국회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 손익계산을 철저히 따지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보완대책을 철저히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민노 반대투쟁 기조=이에 반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반(反) FTA의 기조를 높이 쳐들기 시작했다. 농촌 출신이 많은 민주당과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민노당에서는 정치적 입장과 정체성을 다지는 확실한 '공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6일째 단식 농성중인 문성현 대표 주재로 농성장인 청와대 앞에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협상 타결시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 "범여권 후보 단일화 먼저" 발언 사고 동교동-민주당 '파열음'

민주 "통합 논의에 찬물" 반발 동교동 "DJ 진의 잘못 전해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범여권 통합과 관련, '선(先) 대선 후보 단일화, 후(後) 통합'을 제시한 것 관련, 김효석 원내대표가 동교동에 항의성 전화를 한데 이어 민주당 통합파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결국, 동교동 측에서 "김 전 대통령의 진의가 잘못 알려졌다"고 한 발 물러섬에 따라 일단 파문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동교동과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통합파 의원들은 지난 1일 김 전 대통령이 제시한 정계개편 방법론에 대해 "갑툭튀식 전략공천 문제로 민주당에 집만 떠넘긴 DJ가 정작 중요한 시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며 "특히 DJ의 발언은 통합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 통합파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들의 당 내의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는 데다 범여권 통합 움직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되

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통합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자 동교동은 "김 전 대통령의 진의가 잘못 전해졌다"며 한 발 물러섬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교동 측 관계자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은 평소 범여권 통합정당의 단일후보를 강조해왔고, 만약 통합정당 창당에 어려움이 있다면 단일 후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일 저녁 전화를 통해 동교동에 항의의 메시지를 전했던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2일 아침 박 지원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김 전 대통령의 진의가 잘못 전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파문 확산을 경계했다.

그러나 DJ 발언 파문은 막판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 옮겨 붙으면서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박상선 전 대표 측은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통합하려는 것으로 박 전 대표를 압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장삼 전 대표 측은 "특정 후보가 원칙적인 입장을 나타낸 DJ의 발언을 대표 경선에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동욱기자 tuim@

美 "중기적으로 100억弗 이상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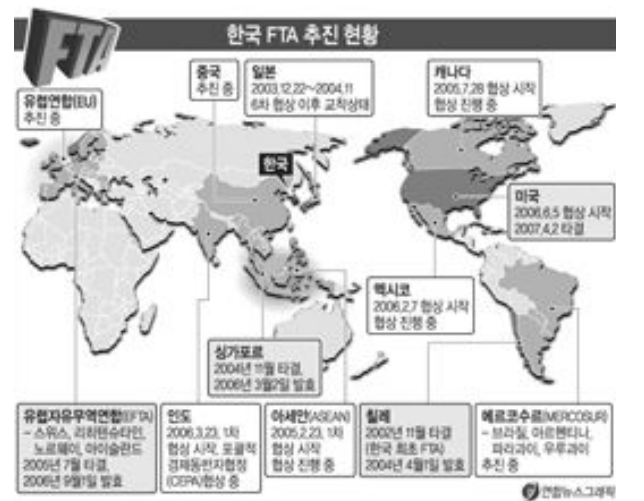
FTA 손익 계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중기적으로 최소한 100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측과의 협상을 이끈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지난 20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소위 증언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측 이익이 "170억 달러에서 430억달러에 이를 것"이란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직접적인 이득 못지 않게 미국이 중시하는 건 미국 경제의 세계적 경쟁력 유지이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 시장에서의 우위 선점은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밀어붙인 주요 목표였다.

세계적으로 빠르고 역동적인 경제모델로 꼽히는 한국과 FTA를 맺음으로써 자칫 중



국의 안마당이 될 우려가 있는 아시아에서 경쟁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포석이다. 미국은 특히 싱가포르와 호주에 이어 한국과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및 유럽연합(EU)과 맞설 토대를 구축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잇따라 협정을 맺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실현한 셈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국회의원 설문 찬성 3·반대 9·유보 7명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따른 국회 비준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에 나선 결과, 전체 19명의 의원 가운데 비준 반대는 9명, 판단 유보는 7명, 비준 찬성은 3명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의원 대부분은 국회 비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광주지역 의원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유보 입장이 강했다.

특히,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명확한 소신을 밝히기보다는 여론에 편승, 눈치보기식 반대나 유보 입장을 나타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우선 전남지역 의원들 가운데 우윤근(광양·구례), 유선호(영암·장흥), 주승용(여

贊 "농업의 근본대책은 경쟁력 키우는 것" 反 "졸속 추진...산업·계층간 양극화 심화"

수 을), 김효석(장성·담양·곡성), 이낙연(영광·함평), 최인기(나주·화순), 채일병(해남·진도), 신중식 의원(고흥·보성) 등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국회 비준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미 FTA 협상은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농·축산 분야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구가 농촌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 협상안의 국회 비준이 이뤄진다면 산업간,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이낙연 의원은 "농업·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책이 마

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영호 의원(강진·완도)과 김성곤 의원(여수 갑)은 한미 FTA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에 찬성하는 명확한 소신을 밝혔다.

이 의원은 "농업의 근본적인 대책은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성곤 의원은 "근본적으로 국회 비준에 찬성하며 피해 분야의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갑원 의원(순천시)과 이상열 의원(목포시)은 "좀 더 지켜보고 검토한 뒤 국회 비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강기정(북 갑), 지병문(남구), 정동채(서 을), 양형일(동구), 염동연 의원(서 갑) 등 광주지역 의원 대부분은 한미 FTA의 국회 비준에 대해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그동안 한미 FTA 반대에 나선 김태홍 의원(북 을)은 "국회 청문회 및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회 비준 저지에 나서겠다"며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김동철 의원(광산구)은 "기본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피해 분야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U best insurance. Text includes: 'U best 당신이 최고입니다!', 'U best 2월 1일부터', 'U best 3월 1일부터', 'U best 4월 1일부터'. It lists various insuranc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KDB.

Advertisement for Cell Banking. Text includes: 'Cell Banking', '셀뱅킹은 건강한데 자신의 세포를 보관해준다기', '당뇨를 주요 합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형 치료 시작합니다.',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셀뱅킹 1777-3475'.